

만남에 무게 두지만 빈손맨 역풍 부담

민주, 영수회담 의제조율 고민

민생·반값등록금 등 손쉬운 해결책 없어 “밥만 먹고 왔느냐” 당내 비판 나올 수도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선정에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본격적인 실무접촉을 갖기 전에 당내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하나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회담 제안자인 손 대표가 민생카드를 꺼내들었고, 청와대도 이에 공감한 만큼 민생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손 대표 주도를 계기로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히며 미리 차단막을 쳤다. 이에 대해 손 대표의 한 측근은 15일 “이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민주당에 앞서 가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며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현안도 감감한 상황이라는 마 찬가지다. 민주당은 등록금 대책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감세 정책을 재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어 조율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민주당의 추경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민생’을 이유로 사법개혁 등 정치현안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당에서 “청와대에서 밥만 먹고 왔느냐”는 비

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전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민주당은 회담 직후 “의제 18건 모두 소화를 했다”며 “이보다 더 분위기가 좋을 순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당내 쇄신파로부터 “야당다운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이와 관련, 손 대표 비서실장인 정장선 의원은 “의제는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열어두며 “총체적 난국인 이때 대통령과 대표가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파주 임진각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등록금 부담완화' 난상토론

“고등교육 공공재... 고지서상 반값등록금 필요”

“정부 재정지원 확대... 기부문화 확산 전제돼야”

한나라당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대학 총장과 교수, 총학생회장,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대학 측은 “정부의 확대 지원 없이 무조건적인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대 박은철 총학생회장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현재의 심각한 등록금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당을 넘어 20~30년 길게 보고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고등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 중심으로 지원해야 대학 경쟁력도 확보하고, 규제도 할 수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대학 적립금이 어

떻게 사용되는지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학생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4대 강과 부자 감세는 서두를 일이 아니지만, 등록금은 대학생 생존권과 직결된 민생 문제”라면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의 마음을 철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림대 이영선 총장은 “등록금이 비싼 것은 모든 것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든지, 미국처럼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대학이 민간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화살을 돌렸다. 김순태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반값 등록금” 논의가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용

아니냐는 점 때문”이라며, 동덕여대 유극렬 교수는 “대학 법인의 투명성을 유지하면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정치권과 대학 측의 태도를 각각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등록금 500만원이 250만원으로 줄면 가계부담은 줄고 소비진작으로 출수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애가 타 죽었는데 서두르지 말자는 대통령이나 재정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장관의 말은 충격이다. 출생에서 졸업까지 3억원이 드는데, 요람에서 졸업까지라도 사회에서 책임져 달라”고 지적했다. 황유여 원내대표는 “국민적 열기와 성원에 힘입어 이번엔야말로 국회 민적 뒷받침을 받아 등록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며 “의견수렴과 정부 교섭단계가 있어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해 저축銀 감사보고서 1년 뒤에야 처리 이유 뭔가”

남경필 “나도 출마”

한나라 당대표 경선

국회 법제사법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저축은행 감사실시한 감사원에 대해 능력 부족 처리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 등을 문제 삼아 집중 심도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작년 4월30일 감사실시보고서가 상당히 잘 돼 있어 곧바로 의결했다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안 생겼을 것”이라며 “1년을 끌면서 굶아 터졌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감사보고서 채택이 질질 늘어지니 로비의 소지가 생긴다”고 가세했고, 이정현 의원도 “1년 뒤에야 감사결과를 의결하면서 씩씩 대로 씩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개탄했다. 저축은행 회장 감사 직후인 작년 5월4일 당시 김황식 감사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도 논

란이 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은 ‘당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거짓 말을 하는 게 청와대나 감사원이나”고 따졌다. 민주당 위원들은 또 은 전 위원의를 구속을 내세워 감사위원 전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로 감사위원 전원 이 사표를 냈는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전원이 사표를 내고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 세웠다. 박영선 의원도 “이번이야말로 감사위원은 전원 사표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한나라당 세신세력의 대표로서 반드시 당의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7·4 전 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라며 “당장 8월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는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철회, 정치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 대표가 되면 국민 밥그릇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 문제는 느긋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등록금 문제에 실린 국민의 목소리는 단선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기회와 꿈을 잃고 좌절하는 절규”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박근혜, 3일간의 탐색전은 끝났다

기재위 활동 서로 내공 확인... 팽팽한 정책 대결 관심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로의 내공을 확인하는 탐색전을 펼쳤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기재위 활동을 통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정책 전문성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박 전 대표는 지난 13일과 14일 상임위 활동에서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와 소득분배 지표의 정확성을 지적하는 등 복지 분야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서민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 호평을 받았다. 또한 박 전대표는 15일 열린 기재위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와 설전을 벌일 정도로 물가 당국의 금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전문성을 과시했다. 박 전대표는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며 “뒤늦게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가계 파탄과 금융기관 부실이 걱정되고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더 증가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한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3일 동안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경제기조의 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사회양극화 등 민생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주장하는 가 하면 국제적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손 대표는 15일 상임위에서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부 경제정책의 관계, 금리인상 시기의 적절성 등을 질의한 뒤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날 손 대표는 “김중수 총재로서는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지만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한은의 고유 목표에 충실하기보다는 이 정도 정책에 앞장선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촉구

민주당, 6·15 11주년 맞아 손대표 대북특사 제안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남북은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6·15 남북정상회담 11주년 이날 파주 임진각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국 간의 대화가 당장 어렵다면 민간차원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 위가 막혀 있으면 아래를 뚫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사건을 전제로 “마침 (손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준비돼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야당 대표에게 대북 대화를 중재하는 특사 역할을 요청하면 어떤가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할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동구, 대인동 소재)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일야 : 13937㎡
케오미일 23평형 3개동, 케오미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수리원,수도,전기,수도,가스,냉난방,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만원)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울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7개 엘리베이터 있음 울산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만원)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파트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북상면 신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실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적용지및잡종지 : 8480㎡ 공적부지 : 3192㎡외 잡종지 담양육과방면2차선 도로점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산 북면 수련원오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일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 지 : 1500평 (6차선 도로점) (700평)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건물 :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 8.9, 10.9m
▶ 호이스트 :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2011년도 “가정폭력상담원”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여성가족부인증)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1년 7월 4일(월) ~ 8월 5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 접수기간 : 2011. 6. 24(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던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징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인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70번지 교학처 (062)605-1112, 1063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